

화성시



경기도 서남단 해안가에 위치한 시. 동쪽은 용인시, 서쪽은 황해, 남쪽은 평택시·오산시, 북쪽은 바다를 거쳐 안산시·시흥시·군포시·수원시와 접한다. 면적은 688.28km², 인구는 50만 171명(2010년 9월 현재)이다.

:: 쇠길바위, 눈물바위

스님의 슬픈 사랑

정남면 문학리에 자리한 서봉산(棲鳳山)은 예로부터 ‘봉황이 깃드는 산’이라 하여 신성시해왔으며 수려한 경관을 갖추었다.

서봉산 중턱의 작은 암자에는 젊은 스님과 동자 한 명만이 거처하였다. 젊은 스님은 매일같이 마을로 내려와 시주를 하러다녔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은 마을에 내려와 우물가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처녀는 늘씬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스님이 처녀를 보고 “아! 정말 아름답구나”하고 감탄하며 소리를 내자 처녀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놓은 채 도망을 치고 말았다. 스님은 처녀가 두고 간 물동이에 물을 길어두고 나무 아



서봉산 쇠길바위

래서 깜박 잠이 들었다. 나중에 물동이를 가지러 왔던 처녀가 미안한 마음에 물 한바가지를 퍼서 스님에게 주었고 암자로 돌아간 스님은 처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점점 병세가 악화되었다. 어느 날 시주를 마친 스님과 우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병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스님은 곧 처방을 알려 주고 어느 정도 낫거든 자신의 암자로 와 3일간 불공을 드리라 했다.

스님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아버지께 드리니 금세 병세가 회복되어 갔다. 처녀는 스님의 말대로 불공을 드리기 위해 암자를 찾았다. 이제나 저제나 처녀를 기다리던 스님은 반가워하며 처녀를 맞았고 처녀는 3일간 날마다 찾아와 불공을 드렸다.

이윽고 불공을 마친 처녀는 스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스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속세로 환속하여 남자와 혼인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처녀는 깜짝 놀랐으나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할 수 없어 일단 가족과 의논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스님은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낮 처녀는 다시 암자를 찾아와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의논하였습니다. 허나 스님께서서는 수년간 불도에 몸담아 오신 터라 쉽게 속세로 돌아오시기 어려울 듯 합니다만...”

처녀는 스님의 속마음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남자, 소송이 불도의 길을 걷고 있으나 도저히 남자를 두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군요. 환속할 생각을 굳혔으니 나를 헤아려주기 바라요.”

처녀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스님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스님, 이곳 서봉산 꼭대기의 선길바위에서 백을 셀 동안 매달리신다면 청을 들어주겠습니다.”

스님은 기뻐하며 당장 해 보이겠다고 앞장서서 선길바위로 향했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보기만 해도 현기증을 느끼는 곳이었다. 이윽고 스님은 바위에 매달렸고 처녀는 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자신감을 보이며 웃기까지 한 스님은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일흔이 넘자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 여든이 지나자 처녀는 점점 더 셈을 빠르게 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스님이 떨어질 것만 같아서였다. 아흔 여덟, 아흔 아홉이 되자 그만 스님은 정신이 흐려져 바위

를 잡았던 손이 퍼지면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처녀는 스님을 부르며 황급히 절벽 아래로 뛰어 내려갔으나 스님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그런데 슬픔에 앞드려 있는 처녀 앞에서 갑자기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났다. 그곳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졌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이 바위가 스님의 영혼이 깃들어 울고 있다 하여 ‘눈물바위’ 라고 부르며 ‘신길바위’ 와 함께 지금도 스님과 처녀의 슬픈 사연을 들려준다고 한다. 신길의 ‘신’ 은 50을, ‘길’ 은 ‘길이의 단위’ 를 뜻하며 대략 150~160cm 정도라 한다.

∴ 홍법사(弘法寺) 홍랑각시 보살

중국으로 끌려간 홍랑아씨

서신면 광평리 홍법사에는 홍랑각시 보살이 모셔졌는데 거기에는 다 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하였다. 조 공뿐만 아니라 예쁜 아녀자들도 바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리하여 각 지방 고을마다 명나라에 공녀로 바칠 아녀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홍법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마을에 관원들과 함께 명나라 사신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홍만석의 딸 ‘홍랑’ 이 뛰어난 미모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이다. 결국 홍랑은 명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홍랑의 부모는 가슴이 메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딸 을 보내야 했다.

이윽고 명나라로 떠나는 날, 홍랑이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말했다.



홍법사 화성시 서신면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 보거라.”

“제가 명나라로 갈 때 모래 서 말과 물 서 말, 그리고 대추 서 말을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홍량은 명나라에 가게 되었고, 뛰어난 미모로 인해 황제의 후궁이 되었다.

그러나 홍량은 명나라에 도착한 때부터 말 수가 점점 적어졌다. 명나라의 땅도 밟지 않으려고 하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모래를 뿌리고 그 모래를 밟고 다녔다. 배가 고프면 고향 집에서 가져온 대추를 먹었고, 목이 마르면 고향집에서 가져온 물을 마셨다.

홍량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홍량은 매일같이 고향과 집 생각만 하였고 불교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황제는 이런 홍량을 보면서 측은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홍량은 자신이 고향에서 가져온 물과 대추가 떨어지자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홍량이 죽고 얼마 후 황제는 병을 얻었다.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 보아도 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꿈에 홍량이 나타났다.

“폐하!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어진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평안해 질 것이옵니다.”

“어떻게 너를 고향으로 보낼 수 있는고?”

“제 혼이 탈 배를 돌려 만드시고 열두 명의 무쇠사공을 만들어 태우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저의 보살상을 만드십시오.”

“오냐, 그렇게 하마.”

다음 날부터 황제는 부처에게 공양을 하기 시작했다.

“여봐라!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 난 석공과 철공들을 불러 이번 일을 시키도록 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량의 보살상이 거의 완성되려는 시점에 보살상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새로 만들어도 꼭 완성되기 직전에 두 조각이 났다. 황제는 불상 앞에 앉아 보살상이 완성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보살상은 홍량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새겨야 하느니라.”

그러나 황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홍량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백일기도도 거의 다 끝나가고 황제는 점점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러던 중 황제의 앞에 홀연히 홍랑이 나타났다.

“용서해 주오. 내 지난 과오를 용서해 주오.”

황제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인들에게 홍랑의 모습을 일러 주었다. 이렇게 보살상이 완성되고 돌배가 바다에 띄워졌다. 몇날 며칠을 바다에서 출렁이던 돌배는 마침내 홍랑의 고향 앞 바다에 당도하였다.

사람들은 그 보살상을 ‘홍랑각시 보살’이라 불렀고 홍법사라는 절을 세워 그 안에 모셨다고 한다. 홍법사에는 현재도 보살상과 무쇠사공이 원형모습대로 전하며 몇 년 전에는 ‘홍랑각’을 지어 홍랑의 넋을 기린다.



홍법사 홍랑각